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정 민¹⁾

유 안 진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부모이혼과 우울 및 외로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부모애착은 학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또래애착은 성별과 이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이혼가정 청소년보다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높았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이혼가정 청소년보다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높았다. 우울의 경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양부모가정 청소년보다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높았으며,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외로움은 고등학생과 이혼가정 청소년의 외로움 정도가 중학생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외로움 정도보다 각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이혼여부는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애착은 부모의 이혼여부가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매개하였다. 또래애착의 경우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소년의 또래관계 역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양부모가정, 이혼가정, 부모애착, 또래애착, 우울, 외로움

*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 mini178@hanmail.net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 서론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증하여 1990년 45,694건이던 이혼 건수가 1998년 116,727건으로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2004년에는 139,365건에 이르렀다. 인구 천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은 1990년 0.8%에서 2004년 2.4%로 3배 가량 증가하였다. 2004년 전체 이혼 건수 중 미성년 자녀를 1명에서 3명 이상 둔 건수가 91,285건으로 전체의 6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4). 결국 이는 이혼율의 증가를 단순히 가족구조나 결혼행태 변화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혼가정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행동에 대해 절실한 관심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최근에 들어 사회적 변화와 이혼율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중심 가치관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미국에 비해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Amato, 2000). 부모의 이혼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가장 스트레스적인 사건의 하나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이혼가정 자녀들의 적응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실제 이혼가정 자녀들이 일반가정 자녀들에 비해 행동적, 정서적, 학업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Amato, 2001; Amato & Keith, 1991; Hetherington, 1993;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Zill, Morrison, & Coiro, 1993),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Ellwood & Stolberg, 1991; Sohn, 2004; Zill et al., 1993)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변화, 독립성 획득, 학교생활 적응 등의 새로운 개인 발달 과업을 완수해야함과 동시에 이혼으로 인해 변화된 개인·가족·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하므로 보다 가중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이는 결국 그들이 이혼의 부정적 영향에 좀더 노출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혼으로 인해 가중된 다양한 스트레스들은 결국 이혼가정 청소년들의 내면적 증세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해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우울은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혼상 증세의 하나이다. 청소년기의 정서적·인지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심리적 문제들로 인해, 우울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한다(이혜승, 2004). 우울은 스트레스에 대한 특정 반응으로서, 이혼가정의 청소년들은 늘어난 스트레스로 인해 좀더 많은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Mahon, Yarcheski, & Yarcheski, 2003). 실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이혼가정 청소년들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좀더 높은 우울 성향을 보였으며(김숙자, 2003;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이삼연, 2002; 이수연, 2004; 이혜승, 2004; 조경미, 주혜주, 2003, Palosaari, & Aro, 1995), 아동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서지영, 2002; 이순형, 이옥경, 김지현, 2004; 이혜승, 이순형, 2003; Peterson & Will, 1986). 청소년의 우울은 반사회적 행동, 약물남용, 학업부진이나 학교행동문제, 비행행동과 관련되어(강경미, 1994; 양돈규, 1997), 외현적 행동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 역시 청소년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대인관계적 문제이다(Brennan, 1982: 도현심, 1999에서 재인용). 또래의 중요성이 커지

는 청소년 시기에 또래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못할 경우 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된다(박선영, 도현심, 1998).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역기능적이고,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외로움을 좀더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현심, 1999; 박선영, 1998; 우민정, 박인전, 2001; 임연진, 나유미, 2003; Hojat, 1982)를 통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기능과 부모자녀관계의 변화가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칠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혼 후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이전의 친구관계나 비양육부모와의 중요한 관계 상실(Kelly & Emery, 2003)은 청소년의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울과 외로움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나 사회적 기술 부족이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청소년의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어(Weeks, Michela, Peplau, & Bragg, 1980), 두 가지 증상이 일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울과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적 증상들이 부모의 이혼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혼가정 청소년들이 일반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적응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지만, 이들 두 집단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에 대한 수용 역시 높아져 이 차이가 줄어들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Amato & Keith, 1991). 또한 부모와 자녀의 심리, 정서, 행동적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어 간다는 주장(Hetherington, 1989)을 고려할

때, 부모의 이혼여부 자체만으로 자녀의 적응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외국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과 자녀에 적응에 관련된 연구에서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하여, 이혼특성, 자녀의 개인적 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관계, 또래를 포함한 가족 외 환경과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해 논해왔다(Hetherington, 1989; Hetherington, Bridges, & Insabella, 1998; Kelly & Emery, 2003; Lengua, Wolchik, & Braver, 1995).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 중, 자녀의 적응을 돕는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를 들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청소년기에는 ‘가족’을 넘어서 ‘또래’라는 새로운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지며, 또래와의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아진다. 또래관계 즉 또래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이 부모애착의 중요성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애착은 애착의 안전기저로서 또래애착과 함께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Armsden & Greenberg, 1987)

실제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 자기가치감과 낮은 수준의 우울, 불안 등을 보고하였으며(Armsden & Greenberg, 1987; Armsden, McCauley, Greenberg, Burke, & Mitchell, 1990; Greenberg, Siegel, & Leith, 1983; Papini & Roggman, 1992; Wilkinson, 2004), 부모

자녀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외로움과도 관련을 보였다(도현심, 1999; 임연진, 나유미, 2003). 위의 연구들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부 연구(Armsden et al., 1990; Greenberg et al., 1983; Wilkinson, 2004)에서는 부모애착이 또래애착보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보다 결정적인 요인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해 나가며,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그들의 삶과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나 정서적 적응과 무엇보다 밀접히 관련되는 요인이므로, 부모의 이혼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형태가 이혼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부적응과 행동 및 학습문제를 완화시키며(유안진 등 2004; 이혜승, 2004; 이혜승, 이순형, 2003), 또래에게 소외되지 않는다고 느낀 청소년이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안진 등, 2004).

지금까지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및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에 대해 살펴 보았다. 청소년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과 외로움, 특히 외로움과의 관계에서 어떤 보호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혼이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이혼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수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검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은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이혼여부와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서울 및 경기지역 6개 중학교와 5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449명의 중학생과 1365명의 고등학생, 전체 2814명의 청소년이 표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현재 자신의 양육 부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혼가정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양부모가정으로 대상자를 한정시켰다. 이혼가정 청소년 155명과 양부모가정 청소년 2424명 중, 두 집단의 경제 수준이 비슷한 분포를 가지도록, 무선할당 작업을 통해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즉 이혼가정 청소년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각 소득 수준별 %와 비슷한

%를 가지도록 양부모 가정 청소년을 무선 할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혼가정 청소년 155명과 양부모가정 청소년 27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결측치를 제외한 이혼가정 청소년 116명과 양부모가정 청소년 251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중학생이 167명(45.5%), 고등학생이 200명(54.5%)으로 고등학생이 조금 더 많았고, 이 중 양부모 가정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115명(45.8%), 136명(54.2%), 이혼가정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52명(44.8%)과 64명(55.2%)이었다. 중학생의 평균연령은 13.9세, 고등학생의 평균연령은 17.0세였다. 전체 대상자 중 남학생은 172명(46.9%), 여학생은 195명(53.1%)으로, 이 중 양부모가정의 남학생은 128명(51.9%), 여학생은 123명(49.1%), 이혼가정의 남학생은 44명(37.9%), 여학생은 72명(62.1%)이었다. 전체 대상 가정의 경제 수준은 150만원 미만(하)이 205명(55.9%),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중)이 144명(39.2%), 300만원 이상(상)이 18명(4.9%)이었으며, 양부모가정과 이혼가정의 경제 수준 역시 이와 비슷한

비율 분포를 보였다. 부모 직업의 경우, 양부모 가정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이 90명(35.9%), 사무직이 60명(23.9%), 전문직이 29명(11.6%), 기술직이 21명(8.4%)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이 115명(45.8%), 자영업이 58명(23.1%), 노동직이 26명(10.4%), 사무직이 16명(6.4%)이었다. 이혼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이 40명(34.5%), 사무직20명(17.2%), 기술직이 13명(11.2%), 전문직이 12명(10.3%)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자영업이 29명(25.0%), 무직이 25명(21.6%), 노동직이 12명(10.3%), 사무직이 9명(7.8%)이었다. 아버지 직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직업별 분포의 %에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높은 분포를 보인 직업과 그 순서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도, 일반가정 어머니의 직업에서 무직이 많이 나타난 점을 제외하고,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구도구

부모애착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등(1990)의 IPPA-R(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부애착 척도와 모애착 척도는 각각 총 25문항이며, 상호신뢰(10문항), 의사소통의 질(9문항), 소외(6문항)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된다. 응답자는 5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를 평정하며, 총점 범위는 부애착과 모애착 각각 25-125점이다. 이 연구에서 부애착과 모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과 Cronbach $\alpha = .88$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이혼가정 청소년의 경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성 분류		양부모가정		이혼가정		계	
		빈도	%	빈도	%	빈도	%
학년	중	115	45.8	52	44.8	167	45.5
	고등	136	54.2	64	55.2	200	54.5
성별	남	128	51.9	44	37.9	172	46.9
	여	123	49.1	72	62.1	195	53.1
경제 수준	상	13	5.2	5	4.3	18	4.9
	중	107	42.6	37	31.9	144	39.2
	하	131	52.2	74	63.8	205	55.9

우 양육부모의 애착 점수를 부모애착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양부모 가정의 경우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애착 점수를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등(1990)의 IPPA-R 중 또래애착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역시 총 25문항으로 상호신뢰(10문항), 의사소통의 질(8문항), 소외(7문항)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5점 척도로 또래관계를 평정하며, 또래애착 점수의 총점범위는 25-125점이다. 이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으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우울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ovacs (1981)이 개발하고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형 아동용 우울 척도(K-CIDI: Korean form of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총 27개의 문항은 우울정서(5문항), 행동장애(7문항), 흥미상실(7문항), 자기비하(4문항), 생리적 증상(4문항)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항목 별로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3개의 서술문 중 지난 2주 동안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서술문 한 개를 골라 표시하게 된다. 1-3점으로 평정하는 척도의 총점 범위는 27-8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6$ 으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외로움

청소년이 느끼는 외로움은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Russell, Peplau, & Cutrona, 1980)

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Russell과 Peplau, Ferguson(1978)의 UCLA Loneliness Scale을 개정한 것으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10문항)과 불만족(10문항)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의 총 20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만족과 불만족 정도를 평정하며, 총점 범위는 20-80점이다. 이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04년 11, 12월 서울 경기 지역 6개 중학교와 5개 고등학교의 2학년 전체학급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급마다 전공자 1인의 감독 하에 집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전공자들이 각 학급의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설문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교사가 학급에서 진행사항을 감독·지시하였다. 모든 학생이 응답을 마치고 각 반별 설문지가 수거되면 조사가 완료되었다.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자료의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삼원분산분석(Three-Way ANOVA), t 검증(t-test),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학년과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분산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부모애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부모애착은 학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5=12.73$, 76.41 , $p<.001$). 즉 중학생($M=86.25$)이 고등학생($M=81.03$)보다 양부모 가정 청소년($M=87.69$)이 이혼가정 청소년($M=74.11$)보다 좀더 부모에게 애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보다는

표 2.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 점수

학 년	성 별	이혼여부M(SD)		합계 M(SD)
		양부모	이혼	
중	남	90.20(14.06)	78.91(15.99)	86.91(15.43)
	여	90.42(15.52)	75.93(14.03)	85.65(16.46)
	합계	90.31(14.76)	77.25(14.85)	86.25(15.95)
고	남	84.53(13.84)	69.38(7.53)	81.11(14.19)
	여	86.55(11.96)	72.63(12.44)	80.95(13.90)
	합계	85.48(13.00)	71.56(11.12)	81.03(14.00)
전 체	남	87.01(14.18)	74.36(13.43)	83.77(15.01)
	여	88.41(13.86)	73.96(13.11)	83.07(15.25)
	합계	87.69(14.02)	74.11(13.18)	83.40(15.12)

표 3.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년	2349.91	1	2349.91	12.73***
성별	29.59	1	29.59	.16
이혼여부	14110.00	1	14110.00	76.41***
학년×성별	301.81	1	301.81	1.63
학년× 이혼여부	50.77	1	50.77	.28
성별× 이혼여부	18.42	1	18.42	.10
학년×성별 ×이혼여부	92.37	1	92.37	.50
오차	66289.74	359	184.65	

*** $p<.001$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애착 점수의 차이가 좀더 현저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애착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학년과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분산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또래애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 애착에서는 성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_5=6.52$, 6.74 , $p<.05$), 학년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학생($M=88.07$)이 남학생($M=85.37$)보다, 양부모 가정 청소년($M=87.73$)이 이혼가정 청소년($M=84.79$)보다 좀더 또래에게 애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애착 점수

학 년	성 별	이혼여부M(SD)		합계 M(SD)
		양부모	이혼	
중	남	87.89(13.65)	81.00(10.31)	85.88(13.08)
	여	89.97(12.21)	87.45(11.96)	89.14(12.12)
	합계	88.96(12.91)	84.60(11.61)	87.60(12.65)
고	남	85.35(12.07)	83.48(7.67)	84.92(11.22)
	여	88.22(10.51)	85.67(9.79)	87.20(10.26)
	합계	86.70(11.42)	84.95(9.14)	86.14(10.75)
전 체	남	86.46(12.80)	82.18(9.133)	85.37(12.09)
	여	89.06(11.35)	86.39(10.67)	88.07(11.15)
	합계	87.73(12.15)	84.79(10.28)	86.80(11.66)

표 5.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애착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년	60.49	1	60.49	.46
성별	866.61	1	866.61	6.52*
이혼여부	896.81	1	896.81	6.74*
학년×성별	55.90	1	55.90	.42
학년× 이혼여부	117.07	1	117.07	.88
성별× 이혼여부	64.29	1	64.29	.48
학년×성별 ×이혼여부	119.56	1	119.56	.90
오차	47744.40	359	132.93	

* $p < .05$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학년과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우울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삼원분산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우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학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F_{3, 19.93} = 45.23$, $p < .001$). 자세히 살펴보면, 중학생($M = 43.19$)보다 고등학생($M = 47.97$)의 우울정도가 높았으며, 양부모가 정인 청소년($M = 44.67$)보다 이혼가정 청소년($M = 48.12$)의 우울정도가 높았다.

한편, 우울에서는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 = 4.10$, $p < .05$). 구체적으로 그림 1에서 남아와 여아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 정도가 증가했지만, 증가폭의 차이

표 6.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점수

학 년	성 별	이혼여부M(SD)		합계 M(SD)
		양부모	이혼	
중	남	41.25(6.48)	43.78(6.69)	41.99(6.60)
	여	43.51(5.98)	45.83(9.44)	44.27(7.33)
	합계	42.41(6.30)	44.92(8.32)	43.19(7.07)
고	남	47.71(6.68)	50.52(2.98)	48.34(6.15)
	여	45.31(6.98)	51.11(5.01)	47.64(6.86)
	합계	46.58(6.91)	50.92(4.43)	47.97(6.53)
전 체	남	44.88(7.31)	47.00(6.21)	45.42(7.09)
	여	44.45(6.56)	48.99(7.53)	46.12(7.26)
	합계	44.67(6.94)	48.12(7.10)	45.80(7.18)

표 7.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년	1931.80	1	1931.80	45.23***
성별	29.32	1	29.32	.69
이혼여부	851.34	1	851.34	19.93***
학년×성별	174.96	1	174.96	4.10*
학년×이혼여부	66.59	1	66.59	1.56
성별×이혼여부	36.12	1	36.12	.85
학년×성별 ×이혼여부	48.09	1	48.09	1.13
오차	15333.58	359	42.71	

*** $p < .0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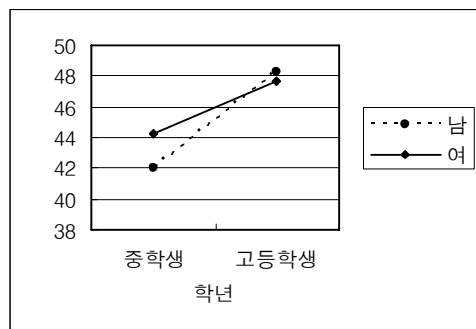


그림 1.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표 8. 우울의 단순 주효과 분석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중	남 79	41.99	6.60	-2.11*
	여 88	44.27	7.33	
고	남 93	48.34	6.15	.75
	여 107	47.64	6.86	

* $p < .05$

로 인해 남아와 여아의 우울 정도 차이가 점차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중학생의 경우 여아의 우울수준이 남아보다 높았지만($t = -2.11$, $p < .05$),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외로움

청소년이 느끼는 외로움 수준이 학년과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분산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외로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우울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에서도 학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F_3 = 51.62$, 10.49 , $p < .001$, $.01$). 자세히 살펴보면, 중학생($M = 38.46$)보다 고등학생($M = 44.87$)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M = 40.98$)보다

표 9.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외로움 점수

학 년 별	성 별	이혼여부M(SD)		합계 M(SD)
		양부모	이혼	
중	남	38.23(8.74)	41.26(8.88)	39.11(8.83)
	여	37.59(7.88)	38.41(8.52)	37.86(8.05)
	합계	37.90(8.28)	39.67(8.71)	38.46(8.43)
고	남	44.56(9.03)	47.90(3.14)	45.31(8.19)
	여	42.50(8.20)	47.42(6.50)	44.48(7.91)
	합계	43.58(8.68)	47.58(5.60)	44.87(8.03)
전 체	남	41.79(9.41)	44.43(7.50)	42.47(9.02)
	여	40.15(8.38)	43.79(8.57)	41.49(8.61)
	합계	40.98(8.94)	44.03(8.15)	41.95(8.81)

표 10.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외로움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년	3389.42	1	3389.42	51.62***
성별	170.45	1	170.45	2.60
이혼여부	688.81	1	688.81	10.49**
학년×성별	4.18	1	4.18	.06
학년× 이혼여부	91.59	1	91.59	1.40
성별× 이혼여부	1.91	1	1.91	.03
학년×성별 ×이혼여부	66.95	1	66.95	1.02
오차	23571.74	359	65.66	

*** $p < .001$, ** $p < .01$

이혼가정 청소년($M=44.03$)이 좀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과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이혼여부와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이혼여부와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를, 2단계에서 부모애착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모형의 설명력과 각각의 변수가 지닌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 및 부모의 이혼 여부는 Dummy 변수(중=0, 고=1/ 남=0, 여=1/ 양부모=0, 이혼=1)로 변환하여 회귀방정식에 사용하였다.

표 11. 부모의 이혼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우울	외로움
	β	β
1단계	학년	.330***
	성별	.018
	이혼여부	.226***
2단계	학년	.277***
	성별	.028
	이혼여부	.094
	부모애착	-.313***
	R^2	.241
R^2 Change		.078
F		28.666***

*** $p < .001$, ** $p < .01$

표 11에서 우울의 경우,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가 투입된 1단계에서 부모의 이혼여부는 청소년의 우울에 큰 영향을 주나($\beta=.226$, $p < .001$), 부모애착이 함께 포함된 모형에서 이혼여부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094$, NS). 부모애착이 함께 투입되는 경우, 부모의 이혼여부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애착($\beta=-.313$, $p < .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년의 경우 부모의 이혼여부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청소년의 우울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30$, $p < .001$), 부모애착이 투입된 이후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beta=.277$, $p < .001$). 청소년의 학년과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애착을 투입한 결과, 학년과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온 이 회귀모형은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24.1%의 설

명력($R^2=.241, p<.001$)을 지냈다.

외로움 역시 우울과 마찬가지로,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가 투입된 1단계에서 부모의 이혼여부는 청소년의 외로움에 큰 영향을 주나($\beta=.168, p<.001$), 부모애착이 함께 포함된 모형에서 이혼여부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053, NS$). 부모애착이 함께 투입되는 경우, 부모의 이혼여부는 청소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애착($\beta=-.272,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년의 경우 1단계에서 청소년의 외로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62, p<.001$), 부모애착이 투입된 이후 그 영향력이 조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외로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beta=.316, p<.001$). 청소년의 학년과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애착을 투입한 결과, 학년과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온 이 회귀모형은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해 22.2%($R^2=.222, p<.001$)의 설명력을 지냈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이 부모애착에 의해 완전히 매개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부모의 이혼여부와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이혼여부와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를, 2단계에서 또래애착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모형의 설명력과 각각의 변수가 지닌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표 12에서 우울의 경우,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가 투입된 1단계에서 부모의 이혼여부는 청소년의 우울에 강한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6, p<.001$). 그러나 또래애착이 회귀방정식에 함께 포함될 경우 부모의 이혼이 갖는 영향력이 줄어들고($\beta=.191, p<.001$), 또래애착이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beta=-.263, p<.001$). 학년의 경우 부모의 이혼여부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청소년의 우울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30, p<.001$), 또래애착이 투입된 이후 그 영향력이 약간 감소하였다($\beta=.313, p<.001$). 청소년의 학년과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또래애착을 투입한 결과, 학년, 이혼여부,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온 이 회귀모형은 청소년의 우울의 22.9%($R^2=.229, p<.001$)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역시, 학년,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가 투입된 1단계에서 부모의 이혼여부가 청소년

표 12. 부모의 이혼과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우울	외로움
		β	β
1단계	학년	.330***	.362***
	성별	.018	-.079
	이혼여부	.226***	.168**
2단계	학년	.313***	.335***
	성별	.053	-.021
	이혼여부	.191***	.110*
	또래애착	-.263***	-.435***
R^2		.229	.345
R^2 Change		.067	.183
F		26.937***	47.736***

*** $p<.001$, ** $p<.01$

년의 외로움에 강한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68, p<.01$). 그러나 또래애착이 회귀방정식에 함께 포함될 경우 부모의 이혼이 갖는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고($\beta=.110, p<.05$), 또래애착이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beta=-.435, p<.001$). 학년의 경우 1단계에서 청소년의 외로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62, p<.001$), 또래애착이 투입된 이후 그 영향력이 약간 감소하였다($\beta=.335, p<.001$). 청소년의 학년과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또래애착을 투입한 결과 학년, 이혼여부,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온 이 회귀모형은 청소년의 외로움의 34.5% ($R^2=.345, p<.001$)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애착과는 달리 또래애착은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애착은 이혼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감소시켰으며, 특히 외로움의 경우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우울의 경우보다 좀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적응을 돕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가정하여,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우울 및 외로움 간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혼

가정의 청소년은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수준이 낮았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애착은 학년에 따른, 또래애착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부모애착 수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또래애착 수준이 높았다.

이혼 전후의 부모 갈등은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양육부모와의 분리는 낮은 수준의 부모애착의 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혼가정 청소년의 또래애착 정도가 낮은 것은 이혼 후 주거지의 이동으로 인해 이전의 친구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점과 부모의 이혼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가까운 친구나 같은 상황의 또래와는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중학생의 애착 수준이 고등학생의 부모애착 수준보다 높다는 결과는 초기 청소년에서 후기로 갈수록 부모자녀 관계에서 점차 독립성을 획득해나가는 청소년기 특성을 잘 반영해 준다. 또래관계의 경우 학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학년에 관계없이 청소년기에 전반적으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유지됨을 추측할 수 있다. 기존 연구(옥정, 1997; Armsden & Greenberg, 1987)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또래애착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관계지향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정도가 양부모가정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좀더 높은 수준의 우울과 외로움을 보였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김숙자, 2003; 유안진 등, 2004; 이삼연, 2002; 이수연, 2004; 이순형 등, 2004; 이혜승, 2004; 이혜승, 이순형, 2003, 조경미, 주혜주, 2003; 서지영, 2002; Palosaari & Aro, 1995; Peterson & Will, 1986)와 일치한다. 외로움의 경우, 역기능적이고,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좀더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도현심, 1999; 박선영, 1998; 우민정, 박인진, 2001; 임연진, 나유미, 2003; Hojat, 1982)를 통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기능의 약화가 청소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기 동안의 우울 경향 증가를 잘 반영한다. 실제, 우울의 경우 6-12세 사이에는 2-3%, 청소년기(13-20세)에는 6-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mas & Nilsen, 2003; 김교현, 2004에서 재인용). 또한 우울의 복합적 증상들이 경쟁적인 대학입시를 치르는 문화권의 청소년들에게서 입시를 앞둔 시기에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미리, 1996), 입시와 취업의 스트레스를 좀더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우울을 좀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외로움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나 개인의 특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므로 고등학생의 외로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를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 역시 우울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의 입시 문제나 이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의 부담으로 인해 또래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여 좀더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

으리라 추측된다.

셋째, 청소년의 부모애착은 부모의 이혼여부가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매개하였으며, 또래애착은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부모애착이 이혼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킨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이혼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를 연구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유안진 등 2004; 이혜승, 2004; 이혜승, 이순형, 2003)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또래애착은 이혼의 영향을 완전히 매개하지는 못하였고, 부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기반으로 둔 부모자녀관계가 근원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의미한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도현심, 1999; 임연진, 나유미, 2003; Armsden & Greenberg, 1987; Armsden et al., 1990; Greenberg et al., 1983; Papini & Roggman, 1992; Wilkinson, 2004)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 및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혼가정의 경우 비양육부모와 지속적으로 접촉한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분리 경험과 양육부모의 이혼 후 적응문제로 인해 부모자녀관계와 애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도 실제 이혼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 정도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중점을 둔 중재서비스의 절실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래애착은 이혼의 영향력을 완전히 매개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분적인 효과가 나타나 또

래관계 역시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이혼이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와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감이나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Armsden & Greenberg, 1987; Armsden et al., 1990; Greenberg et al., 1983)를 고려할 때, 이혼 후 낮아진 또래애착이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된 이상 이혼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이혼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우울과 외로움에서 좀더 문제를 보이니, 우울과 외로움이 부모의 이혼여부 자체보다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수준의 저하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혼가정 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의 이혼가정 대상의 서비스나 중재프로그램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좀더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과 동시에, 부모와 자녀 프로그램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혼가정 청소년이 또래 및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지닌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사별가정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 가정 청

소년의 적응 양상을 살펴보지 못했다. 추후연구에서는 가정의 형태를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양부모 가정의 경우 주된 양육자를 어머니로 한정하여 청소년의 아버지와 관계 포함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목적 상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에 중점을 두기 위해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고려하고, 이혼가정의 경우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와 아버지인 경우를 구분하여 차이를 검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혼 후 자녀의 적응은 부모애착 뿐 아니라, 이혼 전후의 부모갈등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 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수행이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의 응답 자료를 통해 좀더 실질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자녀관계와 가족관계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무선 할당을 통해 일반가정과 이혼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비슷하게 표집함으로써, 소득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수준이나 부모의 직업 등을 직접 통제한다면 더욱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 변수들(이혼 경과 기간, 이혼 과정, 비양육부모와의 접촉 등)을 고려한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이혼가정의 청소년과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부모와 또래애착 및 정서적 적응에서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 또한 청소년 자녀의 우울과 외로움이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후 이혼가정 청소년과 부모 대상의 중재서비스 개발에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경미 (1994). 소아기 우울증-소아기 우울증의 개관과 발달학적 측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5, 3-11.
-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55-68.
- 김숙자 (2003).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 및 심리사회성숙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 33-49.
- 박선영 (1998). 가족기능 및 인성특성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도현심 (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 229-244.
- 서지영 (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 (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민정, 박인전 (2001). 초기 부모-자녀 결합형태 및 가족기능과 아동의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6, 25-43.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지각: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지*, 6, 191-203.
- 이미리 (1996).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와 일상활동 경험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 137-152.
- 이삼연 (2002).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 66.
- 이수연 (2004).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 403-423.
- 이순형, 이옥경, 김지현 (2004). 가족구조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그리고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9, 73-104.
- 이혜승 (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청소년학 연구*, 11, 421-441.
- 이혜승, 이순형 (2003).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내면적 증세에 미치는 영향: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0, 11-29.
- 임연진, 나유미 (2003).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연구*, 5, 61-69.
- 조경미, 주혜주 (2003). 이혼가정 청소년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 543-

- 551.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한국정신의학회지*, 29, 943-56.
- 통계청 (2004). 인구통계연보.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 Amato, P. R. (2001). Children of divorce in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355-370.
- Amato, P. R. (2000).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 Mitchell, J.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 Ellwood, M. S., & Stolberg, A. I. (1991).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family systems' influences on individual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15, 157-174.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 Hetherington, E. M.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1-18.
-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10, 1-14.
- Hetherington, E. M., Bridges, M., & Insabella, G. M. (1998). What matters? What does not?: Five perspectiv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transitions and children's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67-184.
-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M. (1999).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 risk and resilienc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129-140.
- Hojat, M. (1982). Loneliness as a function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 *Journal of Psychology*, 112, 129-133.
- Kelly, J. B., & Emery, R. E. (2003).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52, 352-362.
-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Lengua, L. J., Wolchik, S. A., & Braver, S. L. (1995). Understand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2, 25-53.
- Mahon, N. E., Yarcheski, A., & Yarcheski T. J. (2003). Anger, anxiety, and depression in

- early adolescents from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8, 267-273.
- Palosaari, U. K., & Aro, H. M. (1995). Parental divorce, self-esteem and depression: An intimate relationship as protective factor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35, 91-96.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 420-440.
- Peterson, J. L., & Will, N. (1986).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L.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Russell, D.,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ment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290-294.
- Sohn, B. (2004). The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r separation on childhood, adolescent and adult psychosocial Health in UK.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5, 51-59.
- Weeks, D. G., Mitchela, J. L., Peplau, L. A., & Bragg, M. E. (1980). The relation between loneliness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238-1244.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 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479-493.
- Zill, N., Morrison, D. R., & Coiro, M. J. (1993).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djustment, and achievemen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91-103.

1 차원고접수 : 2005. 9. 30.

수정원고접수 : 2005. 11. 28.

최종게재결정 : 2005. 12. 01.

Depression and Loneliness of adolescents from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Jung Min Kim

An Jin Yoo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sing a sample of 367 adolescents, this study examined depression and loneliness of adolescents from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Results suggest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arental attachment, depression and loneliness of adolescents with respect to their grade and parental marital status. Also, the level of peer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espect to adolescents' gender and parental marital status. Generally,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showed mor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an adolescents from intact families. Differences in adolescents' depression and loneliness betwee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were fully mediated by parental attachment. Also differences in the level of adolescents' depression and loneliness betwee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were partly mediated by peer attachment.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intact family, divorced family,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depression, loneliness